

“장마철 침수 취약지역 집중 관리”

김관영 도지사, 하천 주변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 대상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 나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 변화로 장마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하천주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대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을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벽면에 설치된 인명탈출시설 뿐만 아니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음성통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침수대비 안전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다.

음성통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침수대비 안전시설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서신지하차도의 인명 탈출 시설은 김 지사가 추진한 탈출 벤치마킹 아이디어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특별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벽면에 설치된 인명탈출시설을 비롯한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음성통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침수대비 안전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다.

부세 8억 원을 확보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 인접한 전주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킴지하차도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지하차도에는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담당자 4인을 지정해 비상시 즉각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하차도 통제기준의 최대 침수심을 15cm 이하로 지침을 바꿨다.

전북자치도는 추가로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정읍시 2개소, 익산시 4개소, 김제시 1개소 총 7개소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점검 활동을 펼치며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서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방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호 기자

“정치가 통째로 길 잃어 이는 해방 이후 처음”

이낙연 새미래 전 대표, 전대 합동연설회 축사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전 대표가 당대표 선출 전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행보를 지적, 대안 정당의 역할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1회 전국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정치가 통째로 길을 잃었고 이는 해방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가기 전에 국정을 망가뜨려 탄핵 위기 앞에 섰다. 야당은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너무 많이 다수 국민들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특정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삼권분립도 허무는 조류의 사태가 생겼다”며 “정치가 이런 국가 위기를 해결해주는 카뎈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패배를 돌이키면서 당원들에게 대안 정당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그는 “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말이 맞았다는 것은 재확인했다”며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고 이대로 뒤서는 안된다는 것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미래의 씨앗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며 “우리의 문제의식과 총정·계획·신념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새로운미래의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당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는 후보 6명이 등록을 마쳤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형호 새로운미래 서울시 당위원장, 신재용 전 새로운미래 대변인, 진예찬 전 민생당 최고위원, 이미영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근규 전 충북 재전시장이다.

후보들은 합동연설회에서 각 5분씩 정견 발표와 별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미래는 오는 4일 부산, 6일 서울까지 3차례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당대표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순으로 1위가 당 대표를, 2~6위 후보는 책임위원을 맡는다.

/뉴시스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을 알릴 절호의 기회’

국내의 경제인 3,000(국내경제인 2,000명, 해외 경제인 1,000명)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 22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 발족 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한류 붐을 타고 한국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한국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이고, 특히 전북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선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의 장이 된다.

지난 7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김관영 지사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등이 대회가 열리게 될 전북대학교 일원을 둘러보며 대회 개최 때에 일어날 문제점을 점검하고 조금의 착오도 없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기도 했다.

10월 22~24일 전북대 일원서...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 참여 재외동포청 발족 후 처음으로 개최... CEO 포럼 등 다채

전북도에서는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도우미들을 오는 7월 19일까지 160명 모집해 교육 후 행사에 적극 도움을 받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 MBN,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해 진행한다. 주요프로그램 행사는 VC(벤처 캐피탈)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지정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각종 세미나, 전시회, 비즈니스 매칭 등으로 이루어진다.

행사 참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지난 6월 1일부터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8월 31일까지 기업 전시업체 등록을 받는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재외동포 일반 참가자는 한상넷(www.hansang.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페이지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국내·외 바이어, 재외동포 경제인, 셀러·참가업체, 일반 참가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된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21일은 사전 관광 등 친교 행사로 비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된다.

22일 시간강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전시 개막식이 이어지며, 운영위원회 오찬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YBLF(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YBLN(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개최식 및 포럼과 기업전시회가 이어지며 개최식과 환영 만찬으로 하루가 마무리된다.

23일은 스타트업 피칭대회 리딩, CEO 포럼 및 오찬 YBLF 산업시찰, 오찬포럼, YBLN 운영위원회, VC(벤처 캐피탈) 포럼 및 상담회, 글로벌 한상드림 이사회, 기업전시회 및 1:1 미팅과 장학금 후원 행사가 이어진다.

24일은 경제단체 총회, 국내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 오찬 포럼, 세미나, YBLN 총회 및 지역별 현안 토론회, 폐회식 및 환영 만찬을 끝으로 행사가 종료된다.

이 행사는 단지 일회성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후에도 전북의 좋은 상품을 지속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등 전북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 물론이고, 전북의 유명 관광지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이 해외의 유명 재외동포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는 등 젊은 인재의 해외 취업 문호가 개방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크게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

민주 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당론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초안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오전 10시, 국회 소론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운,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강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김실연,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고

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대부속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력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제 없는 ‘과학적인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고자 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줄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남북교류 체계적 대응방안 모색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 평화통일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4 평화통일 토론회’가 도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2024 평화통일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맡고, 발제는 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어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민사회의 대응,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좌장을 맡은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의 위험이 높은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통일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할 때”라며, 토론 분위기를 이끌었다.

발제를 한 안문석 전북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의 요인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 교수

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한국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남한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제정을 하는 등 남한과의 관계단절에 방점을 두고 통일과 남북교류는 후순위에 두고 있어 앞으로 통일운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강태창 전북자치도의회원은 “지금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할과 기능의 제고를 위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교육 등의 수요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채로운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콘텐츠가 제작·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 평화통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주 YMCA 조정현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시민운동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하는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참여율도 높지 그렇지 않고 극한적인 통일 운동을 추진해나 가다 보면 참여율도 낮게 된다.”며, “독일 시민사회의 평화와 통일 운동 추진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월요출발 기도회를 통해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해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며 평화시위를 통한 통일에 이르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김성희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3.1절 기념사에서 이야기 했으며, “현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에게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김영태 의원

“시민 행복·지역 발전 최선”...시의회, 5일 부의장 등 선출



남원시의회는 3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남원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김영태(수지·송동·금지·대강) 의원을 선출했다.

김영태 의장은 재선 시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제8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에게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선보였다.

김영태 신임 의장은 먼저 “제9대 하반기 남원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 중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행복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9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